

공동체 소식



연중 제 29주일

하느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되기를 바라시니,
수확할 밭에 일꾼들을 많이 보내시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사로 힘을 얻어,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

10월 기도지향

- 문석찬 요셉, 문문주 엘리사벳 가정
- 김도영, 박희영 카타리나 가정

본당 평협회

- 10/18(주일) 주일교중미사 후, 본당회관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 10/24(토) 오후 5:30

총구역회

- 10/25(주일) 주일교중미사 후, 본당회관

주일학교 공지

- 초등부 교리-주일 오전10:00, 회관
- 중등부 교리-주일 오전10:00, 성당지하

기도 바랍니다

- 김수연 율리안나 자매(이우영 가브리엘)의
조모인 김순덕 마리아 자매님께서
10/16(금, 한국시간) 새벽3시에 선종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신 고인을 위하여 기도바랍니다.

성가곡 조정 안내(대림시기부터)

- 자비송 : 325번, - 대영광송 : 326번,
- 거룩하시도다 : 327번,
- 신앙의 신비여 : 373번(1절-연중, 2절-대림·사순, 3절-부활)
- 아멘 : 378번, - 주님의 기도 : 387번,
- 주님께 나라와 권능 : 389번,
- 하느님의 어린양 : 328번.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63	215	182/169	39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이번주일	문호진 안토니오	안광민 야고보
	차민서 임마누엘	정예찬 미카엘
다음주일	이원준 요한	정병훈 보니파시오
	고평원 프란치스코	김준영 요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 아네스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킨라스티카
차주	박혜정 카타리나	신혜경 마리아 박희영 카타리나

애찬 봉사자

금주	최선윤, 김계숙, 조경희
차주	김경돌, 박정자, 정지연, 함순례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 예리미야, 문석찬 요셉
차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요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10/11	77명	308불	2220불
감영진, 한봉경, 김정원, 박재천, 홍순익, 정석원, 이영민, 이우석, 김정훈, 차호섭, 김화년, 정준구 (총 12세대)			

연중 제29주일
전교 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르코린 4,18-

2015년 10월 18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야**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9주일입니다. 복음의 예수님께서서는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낮추어 봉사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봉사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나눔과 섬김의 생활을 묵상하며 미사를 봉헌합시다.

그림 묵상

선교

오늘은 연중 제29주일입니다. 복음의 예수님께서서는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낮추어 봉사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봉사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나눔과 섬김의 생활을 묵상하며 미사를 봉헌합시다.

정미연 소화대레사

제 1 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2,1-5 <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산으로 밀려들리라. >

화 답 송 :



만 백 성 이 당 신 의 구 원 을 알 게 하 소 서

- 하느님 저희를 어여뵈 여기소서. 저희에게 복을 내리옵소서. 어지신 그 얼굴을 저희에게 돌이키소서. ◎
- 정의로 뭇 백성을 다스리심을 이 세상 뭇 백성을 다스리심을 창생들이 기뻐하리라. 춤추며 기뻐하리라. ◎
- 오곡 백과가 땅에서 났으니 우리 주 하느님이 복을 주심이로다. 하느님 저희에게 복을 주소서. 천하 만방이 당신을 두리게 하소서.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0,9-18
<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8,16-20
<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

세 마

삶을 통한 선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오로 사도의 로마서 말씀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을 알려줍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은 모든 신앙 생활에서 바탕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하느님을 알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들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은 성경들은 모두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하느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있으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은 “그분의 길을 걷는” 이들입니다. 그 길은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고 가르침은 역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세례를 주고 명령한 것을 가르치라고 마지막으로 이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함께 있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열한 제자 중에 “더러는 의심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믿음을 시작하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 역시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교이고 복음화입니다. 하지

만 제자들 중에도 여전히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복음화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교나 선교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외형적인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그리고 필요한 복음화의 모습은 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에 들리는 소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 말하는 ‘들음’은 나의 모든 것을 통해 듣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새기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생활 안에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들음으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이런 소중한 믿음의 가치를 알리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믿음을 통해 우리 자신이 우선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전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가장 훌륭한 전교는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는 것, 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 복음화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좋은 이야기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모두 나의 것이 되지 않는 이유는 그저 귀로 듣고 흘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 역시 그것이 삶을 통해 나의 것이 되지 못한다면 다른 좋은 이야기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 허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

주춧돌

자신의 자리를 망각한 하가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이집트 여종인 하가르를 남편의 침실로 들여보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는 여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그녀의 여종이 아이를 대신 낳아 대를 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라가 생각하기에 몸종 중에서 하가르는 착하고 순종적이라 아이를 낳고도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가르가 임신을 하자 아브라함 부부는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가르는 임신을 한 후 어떻게 변하였을까요?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냐 말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 16,1-6

하가르는 마치 자신이 안주인이 된 양 착각했습니다. 이러한 하가르의 교만한 행동은 값을 툭툭히 치렀습니다. 하가르는 사라의 구박을 견디지 못해 자신의 고향 이집트 쪽으로 만삭의 몸을 이끌고 도망쳤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광야에 있는 샘터에서 하가르를 만났습니다. 그 천사가 “하가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나?” 하고 묻자, 그가 “저의 여주인을 피하여 도망치는 길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무엇이냐 말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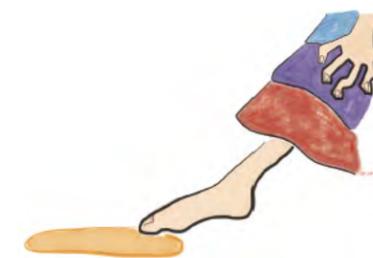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 16,7-16

시간이 지나 사라가 임신하여,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 주신 바로 그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사악이라 하였었습니다. 이사악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낳아 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사악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무엇이냐 말했을까요? 그리고 하가르와 그 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 21,1-21

하가르의 삶에는 기쁨과 슬픔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주인의 사랑을 얻어 아들을 출산하지만 사라에 대한 원망과 아브라함에 대한 실망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슬픔과 회한이 뒤섞여 광야를 헤맸습니다. 지쳐서 샘물곁에 쓰러진 하가르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가르는 광야에서 자신의 짧은 인생을 돌아봅니다. 잠시 잊어버린 자신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동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자리를 이탈할 때 인간은 고통과 시련, 멸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과연 나는 나의 올바른 자리에 늘 서 있습니까?



- 글 어영영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복음 묵상

느능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당근을 구해왔습니다.
칭찬해주세요.

얘야!
재료가 아무리 훌륭해도
요리를 하지 않으면
그저 재료에 지나지 않는답니다.

요리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마르 10,21)

- 임의준 신부(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